

아쉬울때마다 습관성 空約 '호남몫 비례대표 배려' 또...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출마자들이 또다시 호남 몫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약속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서 한나라당 고위 인사들이 10여 차례 '호남 몫 비례대표 배려'를 약속했지만 공염불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전대 출마자 "2·3석 보장"

16대부터 10여차례...번번이 공염불

전대 출마를 선언한 진이계의 안상수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광주를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호남을 대표하는 집권 당 의원이 없다"면서 "앞으로 공천 담당자로서 호남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이 나올 수 있도록 시·도민에게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6일에도 광주를 방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명직 최고위원과 비례대표 의원 2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한나라당 당원들은 또 다른 전대 출마자들의 비슷한 약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씁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던 호남에 '배려'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한나라당 당원은 "아쉬울 때가 되니까 또다시 배려 약속을 하고 있다"며 "마치 적선을 하듯 사당 발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기분이 나쁘다"고 분개했다.

호남 몫의 현직 비례대표인 이정현 의원은 "지키지도 못할 습관성 공약을 하면 안 된다"며 "2~3석이 문제가 아니라 호남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같은 싸늘한 반응이 나온 이유는 지

난 두 번의 총선에서 '배려'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호남 배려 약속은 17대 총선 전인 지난 2004년 1월 당시 최병렬 대표가 광주를 방문,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에 3석은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했다. 최 대표를 이어 박통을 받아 총선을 치른 박근혜 대표도 이 같은 약속을 여러 번 확인해왔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한나라당은 광주 출신의 김예실 국회의원과 교수에게 1번, 전북 출신의 배일도 전 지하철노조 위원장에게 18번을 주며 당선 안정권에 단 2명만 공천했다. 더욱이 이들 인사는 호남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성 및 노동조합 몫으로 배정된 경우여서 실질적인 호남 배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이들은 당선된 후 호남을 위한 어떤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수표 남발'은 18대 총선을 앞두고도 계속됐다.

2006년 8월10일 당시 강재섭 대표가 광주에서 호남 출대를 공식 사과하면서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의 30%는 호남 출신을 기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선 전인 2007년 5월에는 김무성 의원이 광주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50%를 호남 출신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21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이번만큼은 소외됐던 호남 지역에서 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 지역 후보를 40% 이상 배정해야 한다"며 "현재 당 지지율로 볼 때 비례대표 당선권은 26명 안팎인 만큼 9명 가량이 호남에 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역시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2008년 4·9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호남 몫으로 임두성(2번), 김장수(6번), 김소남(7번), 이정현(22번) 후보를 공천했다. 하지만, 이들 중이 후보만 빼놓고 모두 '무늬만 호남'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모두 호남 출신임에는 분명하지만 임 후보는 장애인 몫, 김장수 후보는 군 출신으로 전문가 그룹으로 공천이 됐을 뿐 아니라 김소남 후보는 경기도 양주의 레미콘 회사를 경영하는 재력가일 뿐 그동안 호남을 위해 활동한 경력이 거의 없었던 인사였던 것이다. 그나마 임 후보만이 '광주·전남 몫'이 확실하다는 평을 받았으나 당선안정권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다.

때문에, 그해 7월 박희태 대표는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호남 인사를 비례대표에 공천한다고 해놓고 '무늬만 호남'인 인사들을 비례대표에 공천했으며 18대 국회에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정·관계, 주요 국가기관에 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검소·간소해진 광주·전남 단체장들 취임식

봉사활동으로 대신하고 행사비용 단돈 26만원

다음달 1일 취임하는 민선 5기 광주·전남 지역 단체장들은 취임행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등 간소하게 치를 예정이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실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스스로 몸을 낮춰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취임식을 대신해 지역 사회복지시설 봉사에 나선 단체장들이다. 송광은 광주시 북구청장, 정종득 목포시장, 전완준 화순군수가 대표적이다.

재선에 성공한 송 청장은 다음달 1일 11시 30분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을 방문해 급식봉사를 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민원을 청취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한다. 송 청장은 재임기간 34차례에 걸쳐 지역 내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해왔다.

정 시장은 초청인사를 최소화해 직원 조회 형식으로 취임식을 갖고 오전 목포시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급식 봉사에 나선다. 이후 공생재활관, 목포신항연결도로, 고하도진입도로, 목포대교,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등을 둘러볼 예정이다.

전 군수도 이날 오전 간단히 취임식을 치른 뒤 나드리 노인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에 나설 예정이다.

광양시는 이상용 시장 취임식 행사에 플래카드 2개, 수반 1개, 화환 2개 등의 구입비용으로 26만원을 책정했다. 이 시장의 취임식 간소화 방침에 따라 축하 화분이나 화환 등

을 일체 거부하고 민선 4기 취임식 때와는 달리 시내 곳곳에 걸렸던 축하 플래카드와 선전탑 등은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동진 진도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등 상당수의 단체장들도 비용이 많이 드는 옥외보다는 청사나 공공시설 등을 취임식 장소로 잡았다.

강 시장은 다음달 1일 오전 일찍 국립 5·18 민주묘지 등을 참배한 뒤 광주시 서구 화정동 빛고을체육관에서, 박 지사는 청사 내 김대중 강당에서 각각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간다. 이 군수는 진도를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노 시장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축하공연은 모두 생략하는 등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민선 4기 취임식은 시청 앞 광장에서 다중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등으로 성대하게 치렀지만 이번에는 이벤트성 행사를 모두 생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충석 여수시장 취임식도 초청인사 최소화, 축하 제단 등을 통해 최대한 간소하게 치러지며, 서기동 구례군수도 취임식을 청사 내 회의실에서 간소하고 치르고 식후 각급 기관방문도 하지 않기로 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의 28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퇴임기자회견을 갖고 8년 동안의 임기를 영예롭게 마무리할 있도록 도와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8년간 성원해 준 시민에 한없는 감사와 존경”

박광태 광주시장 퇴임 회견

박광태 광주시장은 "민선 3기와 4기 8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영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28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취임할 당시만 해도 광주는 모든 것이 취약한,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만한 소비도시였지만 지금은 첨단

생산도시, 1000억 불 수출도시로 탈바꿈했다"며 "정말 꿈만 같은 현실"이라고 재임기간을 돌아봤다.

박 시장은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5조3000억원이 투입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한 것, 그리고 고품위 시대를 맞아 빛고를 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한 것 등을 재임기간의 성과로 꼽았다.

박 시장은 "떠날 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며 아름다운 자취가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기를 마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고 "지난 8년간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셨듯이 새 시장님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시장은 8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광주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광주지역 46개 기관·단체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호남 비례대표 배려 관련 발언록

◇안상수 전 원내대표=2010년 6월 20·26일 "호남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이 나올 수 있도록 시·도민에게 약속하겠다" "지명직 최고위원과 비례대표 의원 2석을 보장하겠다"

◇이재오 의원=2008년 3월 21일 "이번만큼은 소외됐던 호남 지역에서 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 지역 후보를 40% 이상 배정해야 한다. 현재 당 지지율로 볼 때 비례대표 당선권은 26명 안팎인 만큼 9명 가량이 호남에 배정돼야 한다"(18대 총선 직전)

◇김무성 의원=2007년 5월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50%를 호남 출신에게 보장해야 한다"(대선 전)

◇강재섭 대표=2006년 8월10일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의 30%는 호남출신을 기용할 것"

◇박근혜 대표와 박세일 선대위원장=2004년 3월26일 "현역의원 배제와 여성 절반 배려, 당선권에 호남 3석 배려 등 3원칙을 지킬 것"(17대 총선 전)

◇박근혜 대표=2004년 3월24일 전대 후 "비례대표 공천 호남 배려 원칙은 그대로 지킬 것이다"(17대 총선 전)

◇최병렬 대표=2004년 1월9일 "석패율제도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호남 3석은 보장하겠다"(17대 총선 전)